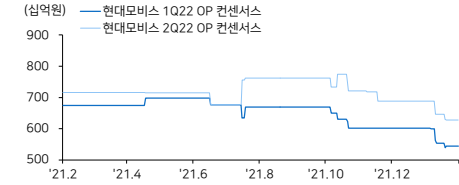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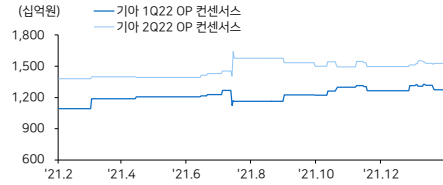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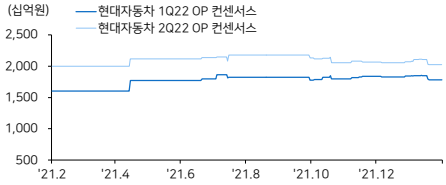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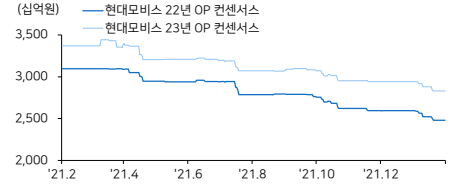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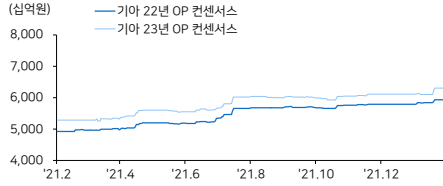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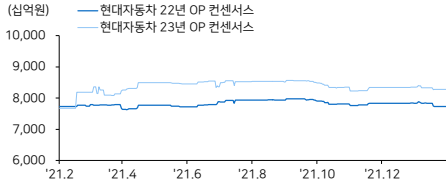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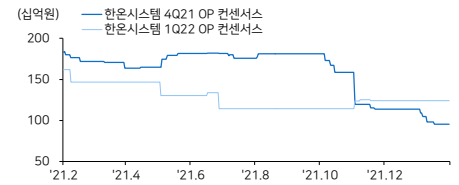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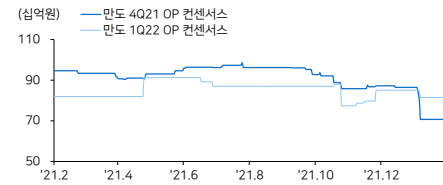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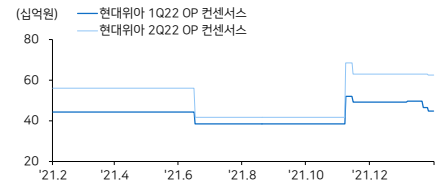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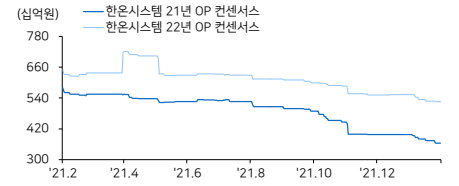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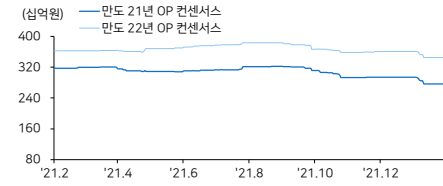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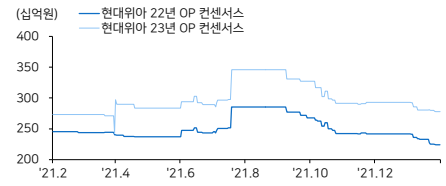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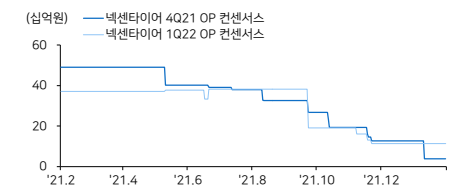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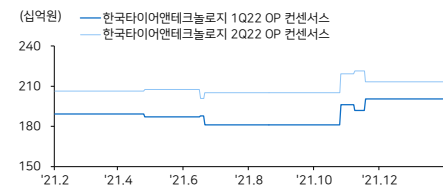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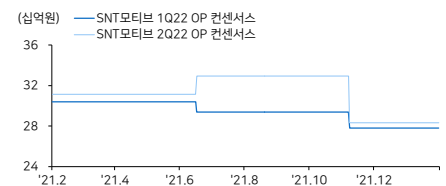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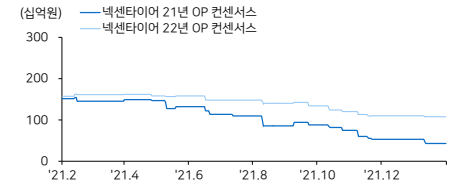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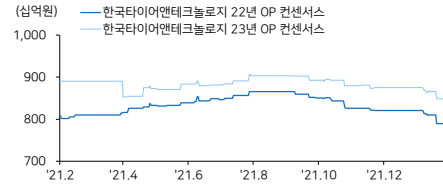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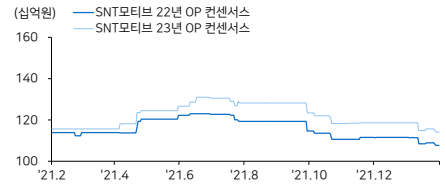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전기차 보급 늦춰지나...2030년까지 리튬 22만t 부족 전망 (뉴시스)

Platts는 배터리 수요 증가와 소재 공급 부족으로 리튬 가격이 급등 중, 2030년경 리튬 부족량이 22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배터리 생산 필수 원자재인 리튬 공급 불균형 지속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 저하 가능성 역시 제기됨.

<https://bit.ly/3oNCJ6A>

Intel's Mobileye, partners to launch self-driving shuttles in U.S. in 2024 (Reuters)

인텔의 모바일아이는 '24년 미국에서 파트너사와 함께 자율주행셔틀을 생산/서비스할 예정. 배치 첫 해 200대 차량을 선제적 운행, 향후 10,000~15,000대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 올해 말까지지는 이스라엘과 독일에서 로보택시 배치를 계획.

<https://reut.rs/3gJ9bTh>

Demand shock behind global bottlenecks should ease in months (Reuters)

WTO의 수석 경제학자 로버트 쿠프만은 '글로벌 무역의 병목 현상은 공급망 문제보다는 수요 급증의 결과이며, 향후 몇 달 안에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힘. 또한 향후 3~4개월 내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 현상을 볼 것으로 확실하다고 언급.

<https://reut.rs/3gLvDvV>

Tesla sold 59,845 China-made vehicles in January (Reuters)

CPCA는 1월 중국 상해 공장에서 생산되어 판매/수출된 테슬라 전기차가 59,845대로 밝힘. 지난 12월에는 70,847대를 판매함. CPCA는 1월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는 211만대로, yoy -4.5% 감소한 수치임을 공개함.

<https://reut.rs/3rOjNqf>

반도체 공급난에...美중고차값 1년새 41% 폭등 '車구하기 전쟁' (동아일보)

중고차 가격 상승이 지속 중. 1월 미국 중고차 가격이 yoy +40.5%로 전체 CPI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같은 연식의 중고차인데도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며, 중고차 가격의 신차 가격 초과 현상도 나타남.

<https://bit.ly/3sEWpPe>

반도체·AI·로봇 인재 모시기 열전...경쟁사서도 과감히 수혈 (서울경제)

주요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을 이끌 신기술을 조직에 이식하기 위해 외부 인재를 적극 영입 중. 공채 우대의 순열주의에서 벗어나 사입 영역이 겹치는 경쟁사나 이종 업계에서도 인재 영입 고려.

<https://bit.ly/34ztUqI>

Tesla reportedly to finalize site for second plant in China in 2023 (CNEV Post)

Tesla는 중국의 두번째 공장에 대한 루머를 부인하였으나 현지 언론 Caillan에 따르면 올해 신규공장 부지선정 절차를 시작해 '23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충칭/칭다오/시안/허베이/우한/선전 등의 도시가 공장 유지를 원한다고 알려짐.

<https://bit.ly/3GJ5tst>

Smart charging may be key to saving power grid in world of Evs (Reuters)

전력수요 피크 시간에 충전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충전 기술이 필수적. 각종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 전원을 위해서는 스마트 충전 시스템을 통한 충전비용/피크전력 수요 감소, 양방향/자랑 한 충전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https://reut.rs/3uU3tWX>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